


치앙라이에서 온 그대★



태국에서의 마지막 5개월 간의 기록 >>> 그 세 번째 이야기



목차

5월 일정

- CLP Fundraising
- Town Center Decoration
- 중간평가
- Home Stay & School
- Bio Gas Building
- Activities with JKY

개인 에세이

5월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2.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3. 2~4 Fundraising in Chaingrai walking street
4. Day off	5.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6.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7.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8.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9. Volunteer for Chiang rai YMCA Social work	10. 3~4 Fundraising in Maesai walking street
11. Day off	12. Meet the Director of village school	13. Prepare for mid Report & Mid report presentation	14. Prepare for mid Report & Visit the hospital	15. Meet with Mr. Jeon & Visiting the CLP patients' house	16. Go to the Border area & Meet the Laos people	17. Mid report
18. Day off	19. Go to School & stay overnight with host family	20.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1. Volunteering program in the school	22. The Trip for the Extending VISA	23. Day off	24. Come back to the Sankhampaeng YMCA
25. Day off	26. Day off	27. Making Bio gas building with Saohin YMCA volunteers	28. Promote the Language school in the market	29. Making Bio gas building with Saohin YMCA volunteers	30. Activities with JKY in Jhakham	31. Prepare the documents for the Visa trip

Fundraising 2, 3차 in Chiangrai Maesai Walking street



CLP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Fundraising은 5월에도 계속 되었다. 우리의 주 무기인 사물놀이는 계속해서 연주되었고 3차 Fundraising 때는 Walking Street의 메인 무대에 올라 성공적인 공연을 치루었다. 이날은 유일하게 국내 훈련 중 대전에서 배운 사물놀이와 함께 '액막이 타령'을 불러 최근에 있었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태국 사람들을 만나 사진도 함께 찍고 CLP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라온아띠의 외침이 태국의 Walking Street에 울려 퍼졌다.

1차 Fundraising : 3시간, 8,150 바트 모금

2차 Fundraising : 3시간, 5,000 바트 모금

3차 Fundraising : 4시간, 7,734 바트 모금

Total Fundraising : 10시간, 20,884 바트 (647,404 원)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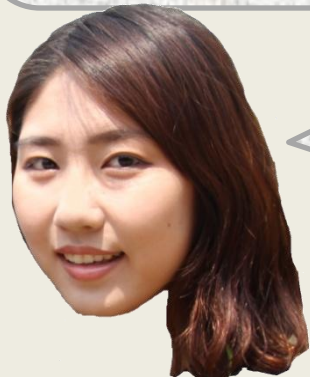


5월을 떠올리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활동이 Fundraising이다. 약 3-4시간을 앉지 않고 계속 서 있기도 했고 밥 먹을 때를 놓쳐 밤 9시가 넘어서야 저녁 밥을 먹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활동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 즐거움에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뜻 깊은 날들임에 자신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를 보며 웃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들에게서 얻은 것이 정말 소중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캠페인 활동. 치앙라이 YMCA의 주된 활동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항상 캠페인 전 우리는 '너무 덥다' '하기 싫어' 이런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항상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모두다 너무 보람차고 좋았다 라고 말하곤 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활동이었다. 하루 종일 CLP아동 가정방문을 하고 모두가 녹초가 된 상황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했고, 항상 저녁 시간을 놓쳐 늦은 저녁을 먹기도 했다. 내겐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던 활동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다.

대전 YMCA에서 사물놀이를 배워 갔던건 정말 신의 한 수 였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모금 활동에서, 사물놀이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3차 펀드레이징 때에는 100명도 넘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까지... 지금까지는 짜여진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를 하거나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CLP 펀드레이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마무리 되어 뿌듯했다. 이제 라온아띠 11기 태국팀의 대표적인 활동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단연 CLP 활동을 꼽을 수 있다!



모금활동, 우리에게는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 할 때에는 너무 어려웠고 고민이 많았는데 1차를 끝내고 2차 3차를 진행하면서 항상 더위와 피곤에 지쳤지만 뒤돌아보면 5월에 가장 큰 활동으로 남았다. 나중에 돈을 모두 모아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다 모은 돈이라고?' 하고 놀랬다. 한국 돈으로 바뀌어 생각하면 생각보다 적은 양이겠지만 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태국팀만이 알겠지. 즐거웠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짱얼거릴 수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

Town Center 가꾸기



Language School과 Day Care 활동을 했던 Town Center를 가꾸는 일을 했다. 녹슬고 페인트 칠이 벗겨진 놀이기구를 깔끔하게 다듬고 난 뒤 새로 페인트 칠을 하였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탓에 피로는 배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놀기에 지저분한 놀이터를 청결하게 만드는데 힘썼기에 뿌듯했던 활동이다.



놀이터를 손보고 나서 Town Center 주변의 정원을 가꾸는 일도 함께 했다. 보기에 지저분 할만큼 무럭무럭 자라버린 나무들의 가지를 치고 다듬었다. 그리고 새로운 묘목을 심으며 센터를 꾸미는 일을 하였다.



귀여운 아가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는 것 짬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내리쬐는 햇빛, 무더운 날씨 덕분에 정말 최고로 극에 달하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하나 하나 모든 것이 거슬렸던 시간도 있었다. 특히 강박증에 시달릴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꼼꼼한 성격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충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혼자 끙끙 앓기도 했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리긴 했지만, 정말 힘들었다.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도 있는 거고... 저럴 때도 있는 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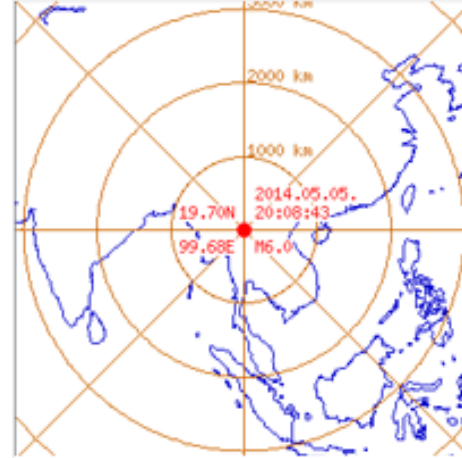
타운 센터의 놀이 기구를 페인팅 하는 일은 정말 정말 힘들었다. 라온아띠 태극팀 모두가 습하고 더운 날씨 덕분에 불쾌지수가 정점을 찍은 상황 모두 말없이 침묵의 페인트 질을 할 뿐이었다. 온 몸에 페인트가 다 묻는 상황 나는 체념하고 그저 페인트 질을 했다. 그래도 완성된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불쾌감이 사라지긴 했다. 이날 우리 라온아띠는 비가 와 페인트 질을 다시 하지 않기를 빌며 잠이 들었다 하하하.

이 활동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었는데, 첫 날은 사포로 페인트가 뜯어지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작업을 했었다. 그 때는, 다음 날 있을 페인트 칠이 벽화가 아니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다며 모두가 자만에 가득 차 있었는데... 페인트칠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다른 팀원들 말대로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다 해놓고 보면 뿌듯함과 감동이 차르르르 밀려온다. 수 많은 벽화들, 놀이기구 칠하기 등 라온아띠 태극팀은 이제 페인트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이다. 고급 노동력이라고나 할까...? ㅋ



타운센터에 오랜만에 와서 보고싶은 아이들 얼굴은 못보고 쌍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열심히 놀이기구를 긁고 페인팅을 하고 나무를 가꿨다. 하필이면 정말 더운 시간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더위 속에서 진행된 일정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스텝들에게 서운해질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웠다. 그래도 나중에 확연히 보이는 Before & After에 뿌듯 했다!! 하지만 다시는 페인팅을 만지기 싫어졌다... 하게 되면 또 열심히 하겠지. 하하하하하.

지진 체험



최근 국내외 주요 지진 발생 현황
 규모 2014.05.05 20시 08분 43초
6.0 태국 치앙라이 남서쪽 27km

진원시	규모	진앙지
2014.05.05 05시 18분	6.2	일본 도쿄 남남서쪽 80km 해역
2014.04.26 14시 08분	2.2	경북 상주시 서북서쪽 22km 지역
2014.04.25 12시 14분	2.3	경북 김천시 남남서쪽 19km 지역

2014년 5월 5일 태국시간 오후 8시 경, 태국 치앙라이에서 무려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났다. 라온아띠 세 명의 단원은 식사 중에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였다. 한 단원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생각지도 못한 채 대피도 하지 않고 멍뚱멍뚱 다른 사람들이 도망 치는 것을 구경만 했다고 한다. 지진이 났선 라온아띠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태국 사람들 또한 큰 규모의 지진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금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하는 것을 보아 적응력이 무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에도 2-3일 간의 여진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라온아띠의 잠과 휴식을 방해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미얀마까지 그 지진의 충격이 느껴졌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가슴을 움켜쥐게 만든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니 태국팀의 소소한 추억거리로 남길 수 있었다.



구분	영향
0 ~ 2.9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지 못함
3 ~ 3.9	인간은 자주 느끼지만 피해는 입히지 않음
4 ~ 4.9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는 입히지 않음
5 ~ 5.9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
6 ~ 6.9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며, 1년에 약 120건 발생
7 ~ 7.9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약 18건 정도 발생
8 ~ 8.9	수백km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며, 1년에 1건 정도 발생
9 이상	수천km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약 20년에 1건 꼴로 발생

살다 살다 국내에서도 아닌 해외에서 지진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엔 어디서 이렇게 심하게 공사하고 있나 싶었는데 웬일인걸... 눈떠보니 테이블 밑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살고 보자는 내 몸의 본능이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도 꽤나 심해서 며칠 밤 잠을 설쳤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했던 것 같다. 다행히 큰일 안 일어나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니 웃어넘길 수 있지 정말... 한 번 더 겪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걸림. 백퍼.



내생애 처음 겪는 지진이었다. 밥 먹으며 즐거운 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우리는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두 탁자 밑으로 숨어 들어갔다. 나는 '아...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행이? 식당이 무너지지 않아 살아남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여진에 숙소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두려움에 떨었다. 처음 겪는 지진이라 신선하기도 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때의 일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살아있으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겠지? 팀원들과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데, 엄청난 흔들림에 탁자 밑으로 숨을 수 밖에 없었다. 정말 금방이라도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서... 평소 행동이 굼뜨고 멍한 나는 제일 마지막으로 탁자 밑에 들어갔고, 그것마저도 얼굴만 살짝 들이밀었다(고 마음이 주장했다.) 척추가 다 으스러져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며 아직도 놀림을 받는다;; 그 이후에는 새벽에 시도 때도 없는 여진으로 인해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도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죽고 싶은데, 하나 더 추가됐다. 좋다.



다른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나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다. 나는 설마 지진이겠어?라는 생각에 어디 뒤쪽 공사하나 보다 하고 하던걸 계속하고 있었다. 그 순간 피니트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고 밖에서 'Mang-Kud!!!'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천히 걸어나갔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무섭긴 하지만 잠이 들면 잘 느끼지 못해서 재연이가 깨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모두가 멍청하다고 놀렸지만 나도 많이 무서웠다. 근데 지진은 또 언제 경험해보겠어^_^

주간평가



Chiangrai YMCA의 주요 활동중의 하나인 CLP 환자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치앙라이 Y의 도움을 받아 CLP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 라온아띠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가정을 방문하여 CLP아동의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에서 라온아띠 11기 태국팀의 주간평가를 위해 태국에 방문하신 대전 YMCA 전홍수 감사님과 Chiangmai에 머무르고 계신 이아나 감사님과 함께 치앙센 병원을 방문했다. 우리 라온아띠들은 CLP아동들이 수술 후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 퍼즐 장난감 놀이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라오스 국경 지역을 방문해 라오스 CLP 아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조혼 풍습으로 인해 우리보다 나이가 2~3살이나 어린 아기엄마, 처음 보는 소수민족인 몽족 우리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7월 혹은 태국팀의 다음 기수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캠프와 같은 형식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CLP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



중간평가



라운아띠로서 2개월 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평가 및 점검을 위해서 대전 YMCA 전홍수 간사님과 사무국을 대신해!!!! 치앙마이에 머물고 계신 전 라운아띠 담당 간사님이신 이어나 간사님이 치앙라이를 방문하셨다. 전날의 개인 면담 덕분인지 우리 라운아띠는 편안한 마음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 Y 식구들을 위해 능숙하진 않지만 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2개월 반 가량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며 브리핑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태국에서의 생활과 앞으로 남은 약 2개월간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특히나 Home Stay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물에 혼자 뛰어 노는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이셨는지 걱정과 근심이 섞인 충고를 많이 해주셨다.

우리 라운아띠는 중간평가를 나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오랜만에 보는 한국사람 전홍수 간사님, 이어나 간사님과 함께 텅텅 비워진 에너지 재충전을 위해 화려한~ 점심 만찬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



뽕뽕한 일정 속에서 보고서에 연달아 중간평가 준비를 하느라 한 달의 반이 후딱 지나가버렸다. 중간 평가에 대한 부담감에 편히 쉬기도 어려웠고 걱정이 많았지만 발표 후에 우리에게 활동 잘해줘서 고맙다는 식구들의 말에 안도가 되었다. 사실 여태껏 잘해왔는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으로 다가온다. 오랜만에 해본 한국어 회화가 잘 되지 않아 내심 미래가 걱정이 되었지만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난 기분이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어 좋았다.



오랜만 본 한국인 정말 반가웠다. 한국말로 대화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냥 좋았다. 고작 2개월 반 동안 태국에서 생활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사님에게 다 털어놓으며 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며 나 스스로 반성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게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해주신 대전 YMCA 전홍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 ^

처음 중간평가 메일을 받았을 때, 태국팀만 미정이었다는데 갑자기 가장 첫 번째로 중간 평가를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공식적인 공지도 받지 못하고 Y 스텝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어보려고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무국과 KB국민은행에서도 오지 않아 김도 많이 빠졌었고, 긴장감도 덜했다. 사실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중간평가를 바라보자면 정말 좋은 힐링의 시간이었다. 팀원들, 간사님과 함께 저녁에 맥주 한 잔씩 하며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수다도 떨고 다음 날은 1:1 면담까지. 팀원들한테까지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내 개인적인 고민들을 간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나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간평가가 끝나고 치앙라이Y를 떠나며 그 동안의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던 시간^^



일정을 갑자기 말씀해주셔서 중간평가를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고생 좀 했다. 그래도 빠르게 준비한 것치고는 스텝들과 홍수 간사님이나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 중간평가는 파견된 아띠들의 힐링을 위한 거라고 하셨었는데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다. 발표 PPT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 어디가 힐링? 하지만 겪고 나니깐 이걸 정말 힐링이었다. 간사님과 1대1로 한 상담에서 가장 큰 힘을 얻었고 매일 똑같다고 느껴왔던 CLP가정 방문도 함께하니 더 뜻 깊고 행복했다. 그래서 중간평가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했다.

태국팀의 HOMESTAY

기준에 1달 반으로 예정되어 있던 홈스테이 일정을 19일-24일 동안 총 6일간의 맛보기를 진행하였다. 태국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치앙라이 지역의 홈스테이를 시도하는 측면에서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하게 다가왔다. 팀원들은 각자의 호스트 패밀리가 생기게 되었고, 항상 4명에서 함께 지내고 활동하던 라온아띠였기에 각자만의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좀더 아끼며 그리워하자고 다짐했었다.(?)

1. YMCA와의 단절, 조금은 낯선 환경

2달 반 간의 태국 현지 적응을 끝마치고 YMCA의 결을 잠시나마 떠나게 되었다. 라온아띠의 다른 국가들은 홈스테이를 진행하면서 YMCA 내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태국팀의 홈스테이는 YMCA와 꺾나 동떨어져 지내게 된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던 Y 스태프들의 부재, 오직 태국어의 사용만이 서로의 소통을 허락하는 전과는 낯선 생활 속에서 라온아띠로서의 배움을 이어나가게 된다.

2. 기대감에 녹아 드는 근심들

태국에 적응할만큼 적응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있는 태국팀에 따끔한 충고 한마디가 들어왔다. '호스트 패밀리가 무조건 환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생각만 가졌었지만, 고민해보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패밀리들의 대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각자의 집에서 맡는 집 안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동 해야 할 것을 다짐했었다.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홈스테이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5월에 태국팀의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메 쏘파(48)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우리 엄마! 낮에는 새침한 매력으로 밤에는 귀여운 매력으로 나를 들었다 놔다 들었다 놔다(♪) 집 앞 동산에 팬션도 함께 운영하고 계신다! 집안일은 모두 뱀아에게 맡기셨지만 엄마가 가끔 요리를 하시면 정말 최고의 맛이다! 매일 저녁 나에게 한국어를 물어 보시는데 정말 귀여우시다...하하 찬 락 매 ♥(사랑해요 엄마)

뱀어 (19)

내게 처음 생긴 남동생! 모든 아띠들이 인정 할 정도로 잘~~생겼다! 처음 본 순간 동생이 아니었으면 했다는... 너~담 ㅎ 명문 대학교인 Mae Fah Luang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영어가 능통해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한국어 발음도 좋은 넌 L.O.V.E. (내 동생이야)



뱀아안(22)

동갑내기 수다쟁이 내 쌍둥이! 뱀아안은 마음도 맞고 웃음 코드도 맞아 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내가 느릿 느릿 태국어로 말을 하면 답답해한다, 하하 짜식 ^_^ 현재는 태양열 관련 회사에 취업해서 버스로 12시간이 걸리는 코랏이라는 도시로 떠난 내 친구! 뱀아안 보고싶어 ㅠ ㅠ 돌아와

퍼 씨트(52)

마무앙네 어머니랑 같은 학교에 다니시는 선생님이로 수줍음이 많으신 아뱀! 새로운 딸의 등장에 수줍은 듯 할 말은 다 하시는 귀여운 아뱀. 엄마가 한국어를 물어보실 때 관심 없는 척 하시면서 몰래 따라 하신다. 전 봤어요 아뱀. 하하 가끔 짓는 특유의 감쪽한 표정은 정말... 찬 락 퍼 ♥(사랑해요 아뱀)



Mang-kud

따다따단 땀~ 다다따 단~♪

우리 집 어때? 아띠들의 집 중에서는 가장 예뻐걸? 개인적인 생각이야. 하하 저녁에는 마당에서 우리 삼남매는 배드민턴도 치고 엄마는 훌라우프를 돌리실 정도로 넓~은 마당을 소유하고 있어! 집 옆에 엄마의 미용실이 바로 붙어있고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밥 먹을 때도 있고 거실에서 먹기도 하고 주방에서 먹기도 해! 매일 매일을 다른 장소에서 먹으니깐 외식하는 기분이다~ 항상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어. 한국에서는 가족 각자의 삶이 바빠서 얼굴도 잘 못보고 밥도 같이 식탁에 앉아 먹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곳에서는 항상 밥을 함께 먹고 요리도 함께하고 방에 있는 시간은 잘 때 뿐이야. 나는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이런 생활을 거의 처음 느껴봐.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하하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Mang-Kud's Family

선생님 아빠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엄마, 만난 지 4일만에 떠난 내 쌍둥이(동갑) 뱀안, 미남의 남동생 뱀언.

이렇게 단란한 4명과 나로 이루어진 Mang-Kud의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30분씩 기도하는 신실한 불교 집안이야. 처음에는 '내가 이것 왜하고 있는 거지?' 생각도 하고 못 알아 듣는 말을 계속 들으니깐 무섭기도 했어. 그리고 내가 처음 왔을 때, 나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마당과 산 속에 있는 작은 불상에서 기도를 하고 향을 피우는 행위를 함께 했어. 무려 2번이나..하하. 무교에 가까운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지. 그래도 이게 내 가족의 문화라면 나도 함께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시간도 즐기게 되었지! 내가 언제 또 불교를 만나보겠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의 생활은 나에게 조금(많이) 힘들어. **엄마**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저녁 간단한 한국어를 물어보는데 가장 먼저 물어본 단어는 '소다슬, 일어나, 뱀리뱀리!!' 이거였어.. 뱀리 적응해서 일찍 일어나는 좋은 딸이 되어야겠어! **아빠**는 무심한 얼굴로 귀엽고 수줍은 분이셔. 항상 태국어로 말을 걸어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 듣는 게 함정이야. (죄송해요. 아빠 열심히 공부 할 게요. π π) **쌍둥이 뱀안**과 **남동생 뱀언**은 웃음 코드도 맞고 한국에 관심도 많아서 항상 말이 많은 수다쟁이 나의 남매들이야! 한번은 저녁에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가 수다를 떠니깐 아빠가 TV소리를 높이셨지. 우리 삼 남매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나 했는데 뱀안이 갑자기 취업이 되어서 버스로 12시간 거리의 코깃으로 가버렸어. 남자 형제는 처음인 나와 누나인듯 누나아닌 누나같은(♪) 나를 얻은 뱀언, 두 남매도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겠지? 근데 뱀언!!!! 남자단원들만 좋아하지만 - - 나도 재미있잖아 하하하하하하

땡(남동생)

공부는 안하고 매일마다 게임만 하는 내 동생 땡이 **천방지축**의 갑이지. 게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까지 하는데 참...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어... 부럽다는 생각뿐... 허허... 나중에 몰래 말하고 도망쳐버릴 예정이야. 6월 중순에 돌아오는 땡을 대신해 땡과 친해져야 하는데 땡이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피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서 **친해져야 할텐데...**

오이(엄마)

우리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셔서 한국어나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에 관심이 엄청 많으셔. 한번은 엄마 반의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서 밥 먹다 말고 나 혼자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했던 기억이 선 명히 떠오르네.

똥(형) 22살 동갑내기

나의 룸메이자 친구인 똥!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는 한시름 덜었어. 하지만 나는 영어보다는 태국어가 더 편한 것 같아!(절대 똥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야.) 축구도 같이 보러 가고 다음엔 대학교, 대학로 구경가기로 했는데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네? 언제 돌아오니 똥아!!!

짠(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마무앙의 **한국어 개인 교습**을 받는 학생이야. 사랑해요, 보고 싶어 등 초급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셔. 나도 태국어 초급인데 내 생각은 안 해주시고 엄청 **빠르게 말씀**하셔. 할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문제 아닌 문제인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태국어로 '~라고 말하신거 맞아요?' 되물어 보고는 하는데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 대답한 줄 아시더라구. 여자 친구가 있다는 등... 나에 대한 오해가 많으셔서 큰일이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음... 생각보다 많이 시키하셔서 아직 얘기를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했어. 나한테 궁금한 게 없으신가봐! 으어어! 사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아니고 옆집 버섯 농장에서 가족들을 기르시면서 지내고 계셔! 아직까지 서로의 이름도 모르니...어서 가까워져야겠다!

나콘(아빠)

우리 아빠는 치앙라이의 **경찰관**이셔. 태국 경찰관은 술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 **맥주**를 엄청 좋아하셔서 저녁을 먹을 때마다 '맥주 마시래?' 라고 물어보셔. 모범생인 나는 당연히 아빠와 함께 맥주를 마시지. 가끔은 태국 위스키도 마셔! 하하! **낙시**를 좋아하셔서 낙시 가기로 했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가지는 못했어. 다음엔 꼭 같이 가야지!



너네 아직도 야채 사먹니?

야채도 요즘 돈 주고 사먹나요? 우리 집은 야채란 야채는 죄다 집 안에서 재배해서 먹어. 자급자족이라고 하지. 집 뺀고 집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헨젤과 그레텔에게 과자 집이 있다면 마무양은 야채 집이 있다지. 게다가 유기농이라서 몸에도 얼마나 건강한지!! 절대 비꼬는 거 아니야. 정말로 싱싱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그런데 가끔 우리 아버지가 이 나뭇잎 먹어도 된다면 내게 먹이고는 하는데 정말... 역대 말아본 적 없는 향을 무방비 상태로 맡게 되는데 사실 못 먹는 나무래. 하하하... 집 근처에 할아버지께서 버섯 농장도 하시는데 매일 저녁은 버섯이 꼭 뺄아지지 않고 나와. 내가 또 버섯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농장까지 차리셨는지... 어쨌든 그래서 너네 아직도 야채 사먹니?



왼쪽. 그린 마우양이 익어가는데 중위. 우리 식구의 부엌



위. 바로 바로 식용 가능한 모든 식물들.

아래.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버섯 농장과 가축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Ma-Muang Family



→ 양아들 마음과 함께

1. 사랑은 내가 독차지!!

우리 집은 총 6명의 식구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과 내 또래의 땀까지 말이야. 그런데 사실!!! 땀과 내 동생 똥은 친 자식이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건 아니고 삼촌과 숙모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 뿐이야. 하하. 내겐 아빠와 엄마이지만 삼촌과 숙모인 셈이지. 우리 아빠와 엄마가 실은 자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더욱 친자식 같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거라고 말씀하셨어. 내겐 너무 과분한 사랑이지만, 그에 보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엄청 좋아해주시는 이유가 또 있는데, 똥과 땀은 하루에 밥을 두 끼 밖에 먹지 않아. 게다가 조금씩 조금씩 먹지. 하지만 나는 하루에 무려 네 끼나 먹는데다가 기본 밥 두 접시는 먹으니... 키우는 재미가 있으신가 봐! 사랑을 주는 만큼 살이 찌 거 같은데 내 생애 최고의 무게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야 정말... 아, 그런데 나만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 3형제 모두 사랑한다는 것! 절대 오해 하지는 말자!

2. 천방지축 3형제

보다시피 우리 집은 남자 아이만 3명이 있어.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땀 같은 녀석도 있고 나이 들었다고 말도 잘 안 듣는 똥 같은 녀석도 있지. 음... 나도 한 몫 보태고 있어. 마을 여기저기서 내게 자꾸 술을 권해서 집에 돌아갈 때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고는 해. 게다가 집에서 술을 주니... 술 안 먹는 날이 더 적지 않을까? 허허...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빠까지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죄송하기도 하고... 좀더 화목!? 하기도 한 것 같아!

퍼 삼랑

나의 새로운 가족의 아빠 이셔. 처음 봤을 때 엄청난 카리스마에 놀려 조금 무섭기도 했어:::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눈이 아프셔서 항상 엄마를 위해 음식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알고 보면 엄청 자상한 남자!! 아빠는 전직 학교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와 영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게 항상 물어보곤 하셔(나 영어 잘 못하는데 하하하;;)

메 암편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엄마야. 엄마는 지금 눈이 아프셔서 집에서 쉬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항상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도와드려 엄마는 내가 태국어를 잘 못해 손질 발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이해해주셔. VISA 문제로 마음을 떠나게 된 날 '보고 싶을꺼야 꼭 돌아와' 라고 말씀 하셨을때 감동이었어. 언제나 날 잘 챙겨 주시는 엄마 항상 감사해 하고 있어 .



닝 퓨

나에게 없었던 동생이 생겼어. 내가 다니는 학교의 2학년 학생이기도 해. 귀엽고 장난끼 많은 퓨는 항상 하루도 뺄아짐없이 장난을 쳐. 퓨는 장난끼 많은 모습과 달리 부끄러움이 많아. 퓨 엄마 아빠는 서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아직까지 많이 친해지지 못한 퓨... 빨리 친해지길 바래요.

피범

삼촌 피범은 집에서 유일하게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야. 원래 방콕에서 일하시는데 지금은 눈이 아프신 엄마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 곧 방콕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아쉬울 것 같아. 피범은 축구를 엄청 좋아하셔 그래서 다음에 함께 축구를 보러가기로 했어 엄청 기대가되!!! 항상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어!!



Ma-Yom House

이곳은 우리 집이야 .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야. 하지만 우리 집은 다른 팀원들의 집과 달리 에어컨이 있어 거기다가 내방에 한대 엄마 아빠방에 한대... (에어컨 덕분에 매일 회의를 우리 집에서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난 항상 잠을 잘 때에는 덥거나 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오히려 추워서 감기에 걸릴 것만 같아;;;^^. 또 우리 집 앞 마당 정원에는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 엄마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원을 가꾸셔. 우리 엄마 아빠는 집 근처에서 물고기와 닭을 키우며 계셔 그래서 항상 신선한 계란과 생선구이를 먹을 수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닭의 먹이로 줘서 자연 친화적이야 ^^ . 난 우리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항상 삭막한 도시에 살다가 많은 나무와 동물 심지어 벌레까지 함께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야. 내가 언제 한 번 이런 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집은 내게 힐링을 주는 존재야.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Ma-Yom Family

우리 가족들은 아빠 엄마 삼촌 동생 그리고 나 까지 포함해 5식구가 한 지붕아래 살아가고 있다. 5월 중순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나는 즐거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즐거움과 홈스테이를 하며 내가 이 가정에 괜히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분들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쓸데없는 걱정이었을까? 난 지금 현재 잘 녹아 들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내집 처럼 편안하다 우리가 VISA문제로 인해 마을을 떠나 산캠프캠프Y로 가던 날 난 홈스테이 식구들로부터 단지 6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같이 보냈을 뿐인데 '보고 싶은 거야 꼭 돌아와 우리는 항상 집에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때 엄청난 감동과 함께 난 내가 가족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6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남은 나날들을 어떻게 보내는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난 남은 나날들을 가족들과 더 가까워 지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싶다. 내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환대를 해주고 나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우리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메싸앗

엄마는 집 근처에 있는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만드셔. 그래서 마뽀랑은 매일매일 엄마가 직접 만든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지. 후후후. 마뽀랑이 좋아하는 5대 요리가 생길 만큼 요리 솜씨도 짱짱! 가장 맛있었던 요리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내가 쓸 수 있는 감탄사를 모두 동원하여 그린 커리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 그린 커리만 해주셔 하..하하하하하하

번(남동생)

15살 중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소년. 방에 한번 들어가면 밥 먹을 때 뺄고 거의 나오지 않아. 항상 말을 걸면, “갑”(네) 이라는 대답만 들려올 뿐 흑흑.. 썩스러움에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슬금슬금 이 녀석이 장난을 걸려 하고 있어. 얼른 친해지길 바라~~~~~



뽀(여동생) 11살

내가 선생님이로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소녀. 처음에는 인사를 해도 대답을 하든둥 마든둥,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아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집에만 돌아가면 180도 달라지는 뽀이었지. 같은 방에서 자는데 안기고, 뽀뽀하고(6월에는 입술을 뽀뽀했다는..), 간지럼 태우고, 섹시 댄스도 춰. 무엇보다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 와. 이렇게 마뽀랑 꾀딱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금은 완전 친동생과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지.

퍼롱리(할아버지)

아빠는 학교에서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하셔. 아침에 학교 문을 여시고, 정원을 손질하시기도 하고,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셔.(항상 무언가를 고치고 계신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 맥가이버 뽀뽀치셔) 학교에 일이 없을 때에는, 집 앞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가축들을 돌보셔.



♥ 마백랑의 러브하우스 ♥

따다따단 땀~ 다다따 단~♪
 피페가 우리 집을 보자마자 “Your house is perfect for agriculture!” 라며 소리치셨어.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겠지? 돼지, 닭, 개, 물고기, 고양이 가족, 수백 마리의 개구리 등 동물들의 집합소 이자 야채 밭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소규모 농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빠가 집 주변을 이렇게 농장처럼 만드시고 꾸미시는 걸 좋아하셔서 매일 이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 비록 다른 집처럼 에어컨이나 컴퓨터, 와이파이 같은 최신 장비들은 없지만 이런 자연 친화적인 집에서 한 달 반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어.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모두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런 환경은 내게 낯설고 새롭거든.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Ma-Prang's Family



Episode 1 태쿠거 종마알 어려워효

우리 집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간단한 일상 표현을 제외한 대화가 서로에게 조금 벅쌌어. 항상 엄마가 무엇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지만, 결국에는 “마이 카오 짜이, 떼 탐 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게요!) “마이 카오 짜이, 떼 킨 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무엇이든 다 하고, 무엇이든 다 먹었다는.... ^^

그런데 비자 문제로 잠시 마음을 떠나야 했던 그 전날 밤, 엄마가 방에 펜과 공책을 들고 살며시 방에 들어오셨어.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 돌아오면 한국어로 인사하자던 엄마. 거의 3시간 동안 엄마와 뱀에게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주고, 서로의 언어를 발음하며 웃고 떠들던 그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한 외국인 딸내미였을 텐데, 그런 내게 수줍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며 다가오시던 우리 엄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짝했던 순간이었어.

Episode 2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홈스테이에 오기 전, 중간 평가가 끝나고 이아나 라온아띠 전 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보고서를 쓰는 지금 그대로 떠올라. 아마 마을에 들어가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아, 바로 이런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런게 사람 사는 거였지.’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정말 그래.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붙어있어. 항상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하지. 학교에 있을 때에는 학생들과, 집에 있을 때에는 가족들과, 회의를 할 때에는 팀원들과 함께야.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고 싶을 때는 꼭 자는 척을 해야 해. (ㄱ ㄱ ㄱ) 원래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에너지 소모가 더 들기 때문에 지칠 때도 가끔, 아니 사실 종종 있어.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활에 나는 점점 적응 되고 있어.

Be a TEACHER

HOMESTAY를 진행하면서 Village의 학교 '바안 탐파앗땡'에서는 선생님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각자 맡은 바 자신의 특기와 기호에 맞춰 수업을 계획하고 가르칠 계획이다. 총 67명의 학생이 존재하고 학년마다 받은 1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1, 2학년 학생들은 한 분의 선생님이 총괄하고 3-6학년은 라온아띠가 한 분반씩을 맡아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나가고 있다.

3학년 MANG-KUD

4학년 MA-YOM

5학년 MA-MUANG

6학년 MA-PRANG

약 1주일 동안은 각 반의 학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이들의 이름과 더불어 특성에 적응해가는 단계를 거쳤다. 영어수업, 한국어수업, 동요수업, 종이접기수업을 진행하였다. 영어 애니메이션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갖가지 물품들을 이용해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원들의 개인 특성에 맞춰 한 교과의 담당 선생님이 되기보다 반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수업, 각자의 맡은 학년 별로 수업을 진행했다. 아직까지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원들이 있다고 한다. 화이팅.





단체수업 ' 종이 접기 '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하고 있는 수업이 종이 접기 수업이다. 그래서 특별히 라온아띠는 종이 접기 수업을 이용하여 전교생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개개인마다 다른 색의 종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모빌을 완성했다. 예술 부분의 특기를 보여주고 있는 다슬 단원의 지휘 하에 나머지 단원들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여 아이들의 종이 접기를 돕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교실의 문에 걸어 장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여 아이들의 관심과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교실에서 하던 수업과는 또 다르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임에 의미가 더욱 컸고 또 다른 단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CTIVITIES IN SCHOOL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제외하고 음악 수업 또는 체육 수업과 같은 야외 활동, 그리고 캠페인과 같은 또 다른 교외활동이 존재한다. 방과 후 수업과 같이 월요일과 화요일은 태국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있고, 수요일은 보이즈 & 걸스 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한다. 스카우트 활동 중에 점심을 먹기 전 모기를 조심하자는 모기퇴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목요일은 스포츠 활동으로서 배구나 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을 연습하고 있다. 금요일은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태국 북부 지방의 전통 복장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는 교칙이 있다.

라운아띠들은 이에 착안하여 교내 수업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나 축구, 배구 경기를 하며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전교생이 술래를 하고 라운아띠들이 도망치는 엽기적인(?) 술래잡기는 아이들의 인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월에는 한국의 응원가나 춤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할 예정이다.



BODY, MIND, SPIRIT

몸과 마음, 정신

청결에서부터 시작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건강한 신체와 따뜻한 마음, 올바른 정신은 청결에서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필히 양치를 하도록 양치 시간이 존재하고 집에 가기 1시간 전에는 머리 감는 시간이 있다. 우리도 함께 이를 실천하며 양치를 하고 있고, 직접 머리를 감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 8시, 12시 30분 — 양치 시간
식후 이 닦기가 의무이다.

2. 3시 — 머리 감기 시간

1-6학년 까지 전교생이 머리를 감는 시간이 있다. 남자 아이들의 귀여운 뺨살을 톱톱 치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아직 여자 아이들은 남자단원들이 부담스러운지 머리를 감는데 피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도완 단원, 승훈 단원 '친해지길 바래~'요.



일주일, 호스트 패밀리와 학교 아이들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끝나버린 홈스테이가 더욱 아쉽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워 한다는 것이다. 홈스테이 가족과 밥 먹으며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학교 아이들과 미친 듯 뛰어다니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다. 반복된 일상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함에 다음 하루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특히 가식 하나 집어 넣지 않고 내겐 아이들이 웃을 때가 진짜 정말 최고로 사랑스럽다. 힐링이란 이런 거구나...



처음 나의 새로운 식구들을 만났을 때 난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내가 여기서 잘 살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분들의 삶에 괜히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역시 난 쓸데없는 생각이 많았다. 홈스테이 식구들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 줬고 언제나 내게 미소를 지어주셨다. 또한 학교에서 생활은 정말 즐거웠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 노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저 즐거울 뿐이었다. 더운 날씨 덕분에 엄청난 욕수?가 몸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이 또한 즐겁다. 아이들... 가끔 장난이 너무 심해 혼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귀엽고 사랑스럽다^^

영어교육이 내 전공이고 미래의 꿈인 만큼, 학교에서 선생님이로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기대가 많이 되었어. 학교를 와보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지 않아 보였어.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교과 과목들은 전부 TV를 통해 배우고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시간, 그저 서성서성 돌아다니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었거든. 물론 밖에서 뛰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냥 그런 것 보다는 이곳에 있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었어. 정말 많이 부족한 나지만(가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해 π π) 영어 회화, 팝송 부르기, 게임 등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예정이고, 나에게도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아. 파이팅!!



영어, 한국어, 종이접기 등등 수업을 진행 할 때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내가 더 배우는 것 같다. TV로 강의만 틀어놓고 사무일을 보는 선생님들을 처음 봤을 때는 당황했지만 태국의 스타일이라는 말에 그냥 받아드리고 내가 더 무엇인가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인기를 예상했던 종이접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더 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속인다거나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내일 수업도 종이접기, 그 다음 수업도 종이접기를 외치는 아이들에 피곤함을 느낄 정도였으니 말 다했지... 그래도 작은 수업에 즐거워해줘서 고맙다. 덕덕덜!

여
기
서
잠
깐
...

?

라온아띠 태국팀의 홈스테이를 갑자기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슨일이래?

뭐야뭐야?

일저질렀구만?

그것이 알고싶다

<1부> 태국 계엄령 선포, 왜?

작년 잉락 친나왓 당시 총리가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해 사면 법안을 추진한 것 때문에 2013년 11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 시위는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정국불안은 극에 달했다. 반정부 시위대(옐로우 셔츠)와 친정부 시위대(레드 셔츠)간의 충돌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태국 군부는 "폭력이 계속되면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군이 나선다."라며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2부> 태국 쿠데타 선언, WHAT!?

태국 군부가 계엄령 선포 사흘만에 쿠데타를 선언했다. 쿠데타를 선언한 태국 군부는 권력을 장악했고 야간 통행 금지, 5인 이상 모이는 집회 및 시위 금지령, 인각 친나왓 전 총리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소환했다.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 군과 관련된 방송을 내보낼 것을 명령했고 심지어 SNS까지 검열했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쿠데타를 선언하는 이유는 지난 20일 계엄령을 선포 한 뒤 친정부세력과 반 정부 세력간에 협상을 중재해왔으나 친정부 세력의 실질적 지도자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군부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 결국 쿠데타를 선언하면서 국가통치권을 가져갔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3부> 아띠들의 상황은 이러하였다!



일정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와 같은 군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할 우려가 큰 방콕 카오산 지역의 '올드타운'에 한해서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던 치앙라이의 홈스테이 마을에서는 계엄령과 쿠테타를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했다. 동행 금지령으로 인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까지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과 텔레비전에 군과 관련된 방송을 보는 정도였다.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비춰지는 태국의 모습은 꽤나 심각했던지 사무국뿐만 아니라 아띠들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5월 23일 금요일, 계엄령과 쿠테타로 인해 태국의 모든 학교가 갑작스럽게 휴교가 되었고 꽤나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다. 무슨 일인지 의문을 품은 아띠들은 다 같이 한 집에 모여 있다가 비자 문제로 치앙마이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피멍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의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캄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비자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득 안고 모든 짐을 싸서 다시 산캄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태국팀... 이대로 조기귀국??!

처음 태국에 파견이 될 때, 우리는 무비자로서 출국을 한 상황. 이는 다수의 국가 간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90일이 만료되기 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태국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90일 이후의 체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는 것. 이유는 태국에서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체류하며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0기까지 미얀마 국경지대 이민 센터에 가서 쉽게 비자를 받았었지만, 11기의 경우 미얀마 국경지대에서도, 치앙라이 이민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거절당했다. 태국의 법이 바뀐 상황이라 어딜 가도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조기귀국을 하는 게 아니냐, 새로 추가된 국가인 미얀마 1기 단원으로 파견되는게 아니냐며 나름 심각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결국 산캄펄 Y 식구들과 한국 Y 사무국에서는 우리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라고 하시고, 말레이시아로의 비자 트립(6월 1일-4일)을 위해 5월 말까지 여러 가지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했다. 꼭 90일 비자를 받아내야만 8월 5일에 무사 귀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을 줄 지는 대사관 담당자의 몫.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나라에 가 본다는 기대와 설렘 또한 컸다.



애들아... 우리...
잘 할 수 있겠지?



감질나게 말레이시아
맛보기 사진 투척!!!

난감하고 난감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비자 문제가 터져버려 우리 뿐 아니라 Y 식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어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역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 좋~~~~은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 진지하게 더 이상 제발 태국 팀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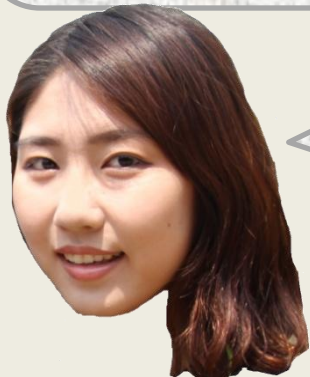


비자... 조기 귀국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진, 계엄령, 쿠데타, 비자문제 우리 태국 11기는 참 Lucky? 하다 ^_^ 덕분에 태국팀 전체 기수 중 오직 11기만 말레이시아로 비자트립을 떠났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지만 조금 아찔한 순간이었다.

팀원들끼리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가장 많이 돌았던.. 비자 문제. 평소에 농담처럼 주고 받는 조기 귀국 트립을 이번에는 장난처럼 내뱉을 수 없었다. "너네는 조기 귀국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가며 얘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ㅋㅋ). 방문하는 기관마다 비자 획득을 거절 당하고, 체류 만료일은 점점 다가왔다. 비록 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말레이시아로 비자 트립을 떠나게 되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냥 걱정 뿐이었다. 우리보다 더 걱정하는 YMCA식구들에 우리가 잘못된 일도 아닌데 괜히 죄송할 정도로 바쁘게 비자를 준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다. 결국에는...



다음 달 보고서에서 계속...

사오힌YMCA와 바이오 에너지 만들기!



갑자기 생긴 휴일에 갑작스런 피사의 연락을 받고 치앙마이 어느 농장으로 달려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 똥 냄새와 함께 시작된 더위 속의 일들, 오랜만에 느껴보는 노동이었다. 사오힌YMCA 스텝들과 처음 만난 인턴들과 함께 시멘트를 만들고 시멘트 빌딩을 옮겨 쌓아 올리는 작업이 계속 되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값진 땀을 흘린 우리는 이틀간 농장을 방문하여 기쁨과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다.



시멘트를 만드는 마무리

시멘트 빌딩을 쌓아올리자!

예쁘게~ 예쁘게~

마지막 작업! 수수!!

농장에서 있었던 일

사오힌YMCA와 함께한 바이오 에너지 만들기를 위해 방문한 농장에서 또 다른 활동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소와 친구되기'였다. 일단 농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를 반겨줬던 소 똥 냄새는 살면서 거의 맡아본 적 없는 엄청난 냄새였다. 우리는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당황하고 황당해하며 허탈한 웃음만 나왔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소들에게 사료와 건초를 나눠 주고 우유 짜는 것을 경험하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밥을 다 먹은 소에게 직접 건초를 한 가닥씩 주면서 소와 장난 치기도 하고 밥 먹고 있는 소의 건초를 노리고 훔치려다가 소에게 혼나기도 했다. 폭포 같은 소변이나 진흙 같은 대변들을 배출해내는 소들을 보며 피해야와 크게 웃었다. 후각은 적응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적응 되지 않는 냄새들로 가득했었고 우리에게 똥 냄새가 베였는지 날파리들이 들러 붙어 피곤한 하루였다. 몸은 피곤했지만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즐겁게 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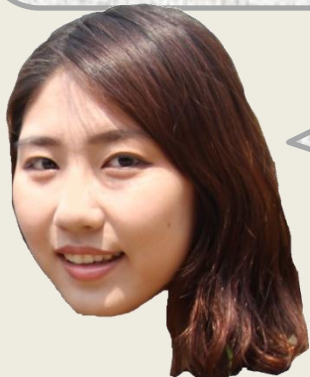


오랜만에 정말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다. 하루 전만 해도 자주 오던 비는 어찌나 안 오던지 더욱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내 살은 더욱 더 시커멓게 타 들어갔다. 해변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변가의 햇볕보다 더욱~ 따사로운 햇볕 탓에 바다 생각은 저 멀리 사라져버렸다. 소 똥도 한 몫 해줬는데 정말 생각보다 두통도 심하고 생각보다 내가 비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 덕분에 내 근육과 뇌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체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해야겠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노동” 이다. 난 솔직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 그래도 덕분에 소 젖 짜는 모습과 소가 오줌과 똥을 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양이 무진장 많았다. 많이 먹긴 하더라... 또한 일을 하며 사오현Y의 새로운 봉사자들을 만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신선한 경험이었다. 근데 또 하고 싶지는 않다..하하하하...

이곳에서는 일을 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Y 발룬티어를 사귀는 일이 더 기억에 남는다. 헝가리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온 친구라 그런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아마 똥양 별 아래에서 같이 고생을 해서 더 정이 든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도 해본다^^...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게 좋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즐겁다.



으... 소똥냄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햇빛은 뜨겁고 시멘트는 무겁고 바이오 에너지 빌딩은 그냥 힘들었다. 그래도 힘들고 지친 티를 내기 싫어 일부러 더 크게 웃고 싸눅(재밌다)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소와 놀 때는 냄새 나도 재미있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그 많은 소들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소’였는데 농장 주인아주머니에게는 ‘영희’고 ‘철수’고 ‘돌쇠’ 였다. 이렇게 크고 냄새 나는 농장은 처음이라서 더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다.

JKY 친구들과 함께한 하루



람퐁의 Jakam school의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교를 방문했다. 웰컴 파티에도 와주었던 친구들이고 태국의 물 축제 '송크란' 때에도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어서 어색한 분위기 없이 즐겁게 게임을 하고 놀았다. 친구들이 아띠들을 위해 춤과 노래를 준비해 줬는데 정말 최고의 무대매너를 만날 수 있었다. 팝송에 이어 K-pop의 대명사 씨스타의 섹시댄스를 추고 마지막으로 일본 전통 춤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우리 라온아띠 또한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체조를 가르쳐주고 함께 뛰어 놓고 우리가 3개월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룹을 나누어 학교 투어를 다녀온 뒤 람퐁의 야시장을 구경하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다. 친구들과는 여전히 페이스북 메시지를 나누는 사이인데 우리를 위해 춤과 노래도 준비 해주고 게임도 준비해 줘서 정말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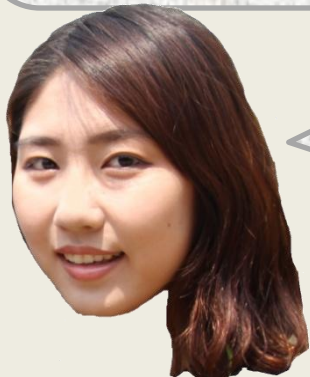


워낙에 끼가 충분한 아이들이 많아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특히 씨스타의 춤을 추는 요염한 남학생 덕분에 숨이 턱턱 막혔다. 재능이 많은 아이들도 많고 사람들과 금방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보기 좋고 고마웠다. 내게 행운을 빈다며 팔찌를 선물한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팔찌의 값을 떠나서 내게 행운을 기원하고 선물해줬다는 그 사실에 이 팔찌가 내겐 소중한 가치로 남겨졌다. 그래서 닳고 닳을 때까지 잘 사용해야겠다. 땡큐.



Welcome party 이후로 처음 보는 JKY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많은 활동과 장기자랑을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자캄스쿨을 돌아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람퐁의 워킹스트릿도 함께 구경하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이전에 먹어 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많이 먹고 아이 쇼핑을 함 좋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도완이 형과 내게 팔찌를 선물해주었다.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주니 더 고맙고, JKY친구가 선물해 주어 더욱 의미가 컸다.

JKY 친구들과는 여러 활동을 같이 해서 그런지, 친근하고 어색함이 없었다.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듣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특별한 프로젝트나 끝내야 할 일이 있었던 활동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우정을 쌓으면 되는 시간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모두가 언급하는 것처럼 씨스타의 춤을 아주 요염하게 춘 남학생은 절대 잊을 수 없을 듯...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너무 너무 반가웠다!! 우리의 3개월 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춤도 추고 게임도 했는데 '역시 JKY 학생들'이라고 생각 할 정도로 끼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에 너무 감동 받았고 즐거웠다. 노래던 춤이던 정말 최고였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웰컴파티에서나 송크란 때 같이 놀진 않았는데 '씨스타'의 '나 혼자'를 흐린 뱀뱀치게 잘 추던 남학생 이다. 진짜 너 커서 대박 날 사람이야. 갱막!(진짜 대단해!)



개인 에세이

1. 인정(認定)

나와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나와 같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에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되새기면서 속으로는 끔끔 앓으며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은 답답하게 여겼다. 정신적으로 답답해하며 지쳐가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진정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 재는 나와 다르지'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그 사람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난 뒤에는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짐을 경험했다. 괜히 나와 같아지기를 강조하며 서로 기분 상하는 일 없이, 내 자존심 한 번 치켜세우자고 괜한 고집 없이 한 번쯤 양보하는 시도가 내 자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람들이 말하길, 자신을 내려놓을 때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 또한 남을 인정하고 내 방식으로의 고집에 대한 이기적 입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의 게으름을 인정하거나 현실 도피를 위한 나의 게으름의 인정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됨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정이란 분명 좋은 행동이고 쉬운 듯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계속된 노력에도 나와는 다른 남을 인정하기란 내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2. 인정(人情)

5월의 짧은 홈스테이 기간 동안 정에 대한 무서움을 많이 느꼈다. 사람 간의 정이란 정말 무서운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물러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홈스테이에서는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왔던 인정에 사뭇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불의로 중단되었던 홈스테이 생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헤어짐이라는 사실에 5월의 홈스테이 마지막 날 밤엔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떠나고 나서도 할머니께서 울음을 터트렸다고 하시니 마음이 괜히 짙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내일 다시 학교로 온다고 약속했는데 돌아가지 못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다. Y로 돌아왔을 때는 당장 내일 학교로 달려가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보며 아빠 웃음 짓고 싶었다.

6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 인정의 무서움에 다시 한 번 뱀바지게 되었다. 내게서 다시 물러갈지도 모르기에 무섭고 두려운 이 인정을 지금은 계속 느끼고 싶고 간직하고 싶다.

소다슬(Mang-Kud)

-사람과 아띠 사이-

현지인과의 갈등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써 부당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이 맞는데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도 되는 걸까. 아시아의 친구라는 라온아띠가 그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내 친구에게 감정표현을 확실히 하는 사람인데 '아시아의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맞나? 이렇게 나와 사람, 미래라는 것을 하염없이 고민하고 생각했고 생각하는 나를 사랑했는데 5월 중간평가 이후 '아, 그래. 고민과 생각 참 좋지. 하지만 지금은 현재를 더...' 더 이상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졌다. 아직도 답은 못 내린 채 깊이 넣어둔 문제지만 나는 사람이자 라온아띠.

-고민 없는 사람과 생각 없는 사람-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서야 한 달을 돌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다는 내 감정은 어떠했는가. 일정을 소화할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 중 오래가는 짜증이나 불만은 없었다. 또 팀원들과의 사소한 다툼도 그냥 다 좋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어쩌면 이런 고민 없고 생각 없는 생활들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의욕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나의 5월은 이랬고 고민 할 내용들을 4월에 다 한 것은 아닐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본다. 하하^_^ 조금 더 솔직해 지자면 3월, 4월은 행복해야지! 노력해야지! 했던 마음이 지금은 가벼워 졌다. 이제는 이래서 저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다. 에세이를 쓰는 지금, 사무실 밖에서는 에세이를 모두 마친 팀원들과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린다. 그냥 이런 소리조차 나는 행복하다. 개인 에세이에 내가 느끼는 행복을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 적을 수 있고 표현 할 수 있을까. 나의 5월은 뽀뽀하고 짧았지만 새로운 행복을, 몰랐던 행복을 가르쳐주었다.

한승훈(Ma-Yom)

1. Home Stay

벌써 오월이 지났다. 이제 우리가 태국에서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홈스테이를 시작하며 2달 반 동안 같이 생활하던 팀원들은 각자의 홈스테이 집으로 흩어졌고,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개인의 시간이 없고 24시간 사람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간사님의 말과 달리 나는 정말 많은 개인 시간이 생겼다. 다른 팀원들과 다르게 나는 홀로 방을 쓰게 되었고, 그만큼 나는 나만의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나 홀로 방에서 지내며 나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난 원래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일까? 쿠데타 때는 내전이 일어나면 어찌지? VISA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귀국을 하면 어찌지? 정말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했고, 4월 내내 날 힘들게 했던 팀원들과의 관계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같이 지낼땐 미움 때도 있고 싸움 때도 있는 팀원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그 동안 왜 몰랐을까? “옆에 있을 때 잘하자” 라는 말을 되새기며 내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생겨 하루를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하며 감성이 풍부해지는? 저녁 혼자 노래를 들으며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나는 이런 나만의 시간이 좋다.

2. 경험

오월은 내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우리는 홈스테이 지진, 계엄령, 쿠데타, VISA 문제까지. 라온아띠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국에 오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 잠 못 이루던 밤(지진은 정말 무서웠다), VISA문제로 인해 팀원 모두가 걱정했던 나날들... 내 집처럼 편안한 홈스테이집.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신선한 경험들 나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김재연(Ma-Prang)

유독 우리 태극팀 11기만이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태극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 마치 유목민(?)처럼. 처음 3월은 산캄펄Y, 4월은 인타논과 치앙라이Y, 5월은 홈스테이 마을로 왔다. 정기적으로 짐을 꾸리고 풀고, 다시 꾸리고 풀고를 반복해왔다. 한 곳에 진득하니 머무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리 저리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 그곳에 정착했다가, 다시 또 떠난다. 처음엔 마냥 설레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두려웠다. 정이 들 때 짬,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짬 떠나야 하니까. 그래 왔으니까. 좀 더 같이 지내고 싶은데...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추억을 쌓고 싶은데... 유목민이 목초지를 찾으러 때가 되면 머무르던 곳을 훌쩍 떠나버리듯이 나도 이렇게 금방 떠나버리는 게 싫었다. 그저 한 때 만나 마음을 잠시 나눴던, 스치는 인연이 될 것만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팠을 때도 있었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상했을 때도 많았다. 별 생각 없이 마냥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거웠던 내가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솔직했던 내가 솔직함도 사라졌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뒤덮을 때도 있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말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 고개를 들어보면 짧게나마 관계를 맺었던 태극 사람들이 내 옆에서 있었다. 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서 있다. 뽀핀과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고 치앙라이 Y를 떠날 때 내게 십자가 목걸이를 조용히 손에 쥐어주시던 피랏. 생일을 기억하고 멀리서 직접 수백 개의 종이벌을 접어 예쁜 유리병에 넣어서 소포로 보내줬던 끌로이. 생일인데 케이크는 붙어야 하지 않겠냐며 케이크를 들고 학교로 찾아와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던 피퐁과 피핀.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을 글로 써서 보내준 노먼 할아버지.... 지금 보고서를 위해 느낀 점을 쓰며 5월 한 달 동안 내가 받은 이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같이 지냈던 시간이 짧았었는데 옆에 계속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지게 되면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겨우 한 달 같이 지내고 나서 헤어졌고, 어쩌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 내 공식 아닌 공식이 깨졌다. 참 감사하다.

“그곳에 가면 사람 때문에 울게 되고, 다시 사람 때문에 웃게 될 거야.” 10기 태극팀의 똥양 언니가 내게 출국 전 편지에 써줬던 말이다. 지금은 너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이제 직접 느끼고 있다.